

제공일자	2015. 5. 18(월)	담당자	김세중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59, 010-2275-5394
			총 2매

제목 : 2012년 암발생을 동향 및 시사점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김세중 연구위원, 김혜란 연구원은 『2012년 암발생을 동향 및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테마진단).
- 2014년 12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암발생률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2011년 323.1명에서 319.5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여성의 암발생률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남성의 암발생률은 감소함.
- 그러나 1999년에서 2012년까지 과거 암종별 발생률 추이를 고려해 보면 2012년의 암발생률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.
 - 발생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암, 간암, 남성의 폐암 발생률이 2012년에는 전년대비 더욱 이례적으로 하락함.
 - 또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던 남성의 대장암과 전립선암, 여성의 유방암, 대장암, 폐암의 발생률은 전년대비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특이 현상이 나타남.
 - 그런데 2012년의 모습이 향후 지속될 지는 불분명함.
- 더욱이 국민 암발생률과 보험업계 암발생률의 상이성 및 주요 암종의 선진국화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 암발생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-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과 유방암 비중이 보험업계에서 높으며, 이로 인해 보험업계의 암발생률이 국민 암발생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.
- 남성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주요 암종으로 분류되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주요 암종이 선진국화되고 있음.

□ 암보험을 판매하는 **보험회사**는 암발생률 증가에 대응하여 암종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**변화하는 암종의 발생률과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.**

- 보험업계 암발생률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암관련 위험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- 보험회사는 이미 암 종류별 가입금액을 차별화함으로써 암발생률 증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암종의 빈도(발생률)와 심도(치료비용)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.

□ 암보험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위험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상품공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**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암발생률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.**

- 암발생률 추세는 예측하기 쉽지 않고 암발생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보험 손해를 관리하는 쉽지 않으며, 과거 손해를 상승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경험도 있음.
- 암보험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발생률 증가와 역선택 등으로 암보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암발생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임.

첨부 : 테마진단 “2012년 암발생률 동향 및 시사점”. 끝.